상승세 이어가는 대전의 도시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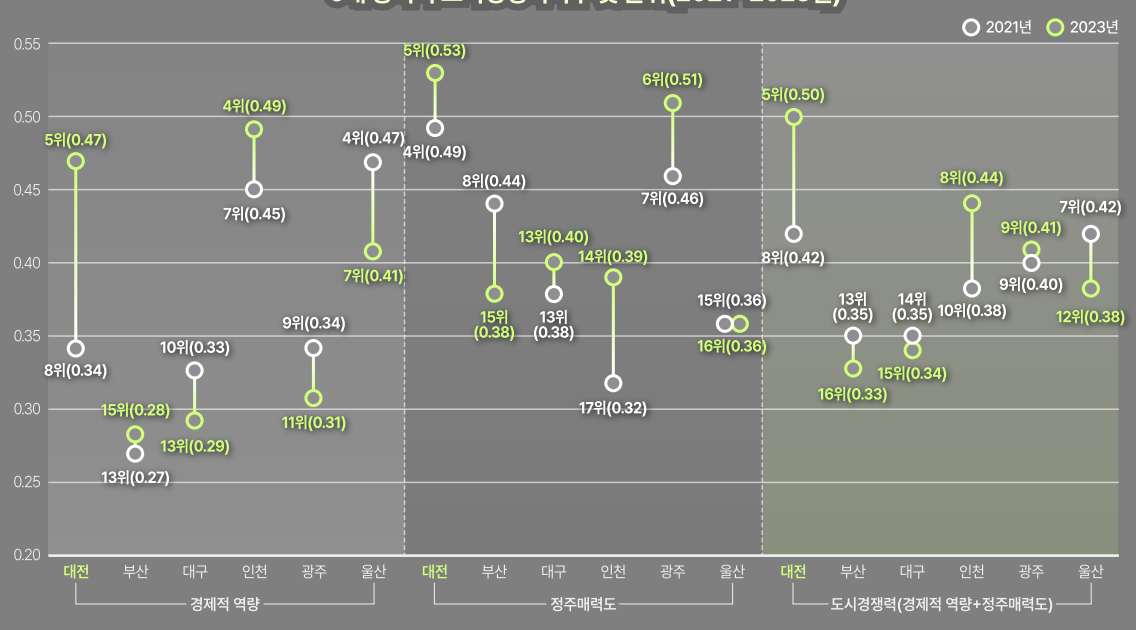
대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는 2022년부터 매년 대전의 도시경쟁력[1]을 측정했다. 최신 자료(2023년 기준[2])를 활용한 분석 결과, 대전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제적 역량 5위, 정주 매력도 5위, 도시경쟁력 종합순위 5위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8위에서 3계단 상승한 성과다.

주 1) 도시경쟁력 측정을 위한 도시경쟁력지표는 경제적 역량과 정주 매력도로 구성되며, 경제적 역량은 균형성장, 인적자원, 물적자원으로 구성되고 정주 매력도는 인구변화, 일터 매력도, 삶터 매력도로 구성됨. 도시경쟁력 지수는 각 영역을 대표하는 총 23개의 지표를 활용해 산출식에 따라 산출됨
주 2) 2025년 5월 기준 23개 지표의 연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최신 연도가 2023년임

대전 도시경쟁력,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대전의 도시경쟁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3개년(2021~2023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대전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종합 5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8위에서 세 계단 오른 성과로 경제적 역량과 정주 매력도의 동반 개선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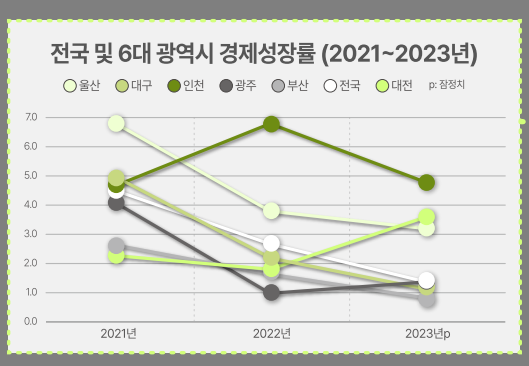
6대 광역시 도시경쟁력지수 및 순위(2021~2023년)



대전 경제성장률 2021년 전국 14위에서 2023년 전국 2위로 도약

대전은 경제적 역량의 개선이 두드러지는데 경제적 역량을 구성하는 지표 중 주목할만한 지표는 경제성장률[3]이다. 2021년 전국 14위였던 대전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3년 3.6%로 인천(4.8%)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다.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2021년 4.5%에서 2023년 1.4%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평균을 하회하던 대전의 경제성장률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3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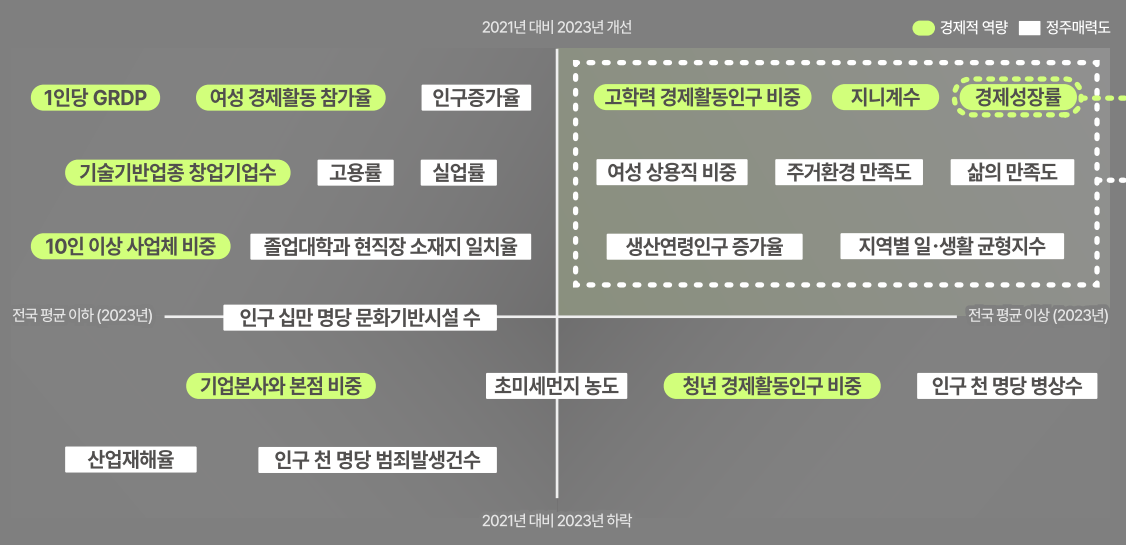
주 3) 경제성장률은 지역내총생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경제성장률 이외에도 대전은 경제적 역량 부문에서 개선된 지표가 있다. 경제활동인구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고학력(대졸 이상) 인구 비중[4]이 높아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지니계수[5]는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득의 불평등이 점차 감소했다. 정주 매력도는 3년 연속 전국 5위권을 기록했으며, 정주 매력도 지표 중 여성 상용직 비중[6], 일·생활 균형지수[7], 주거환경 만족도[8], 삶의 만족도[9], 생산연령인구 증가율[10]이 개선됐다.

주 4) 고학력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 인구의 비중을 의미함
주 5)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수렴할수록 평등하고 1에 수렴할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해석함
주 6) 여성 상용직 비중은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의 비중을 의미함
주 7)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에 해당하는 24개의 개별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수를 의미함. 일 영역(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 기간,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생활 영역(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 생활 균형 정도), 제도 영역(여성 육아휴직 이용, 남성 육아휴직 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 제도 인지도), 지자체 관심도(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주 8) 주거환경 만족도는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주 9) 삶의 만족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에 대한 사회조사 문항에서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에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주 10) 생산연령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의 증가율을 의미함

대전의 2023년 기준 2021년 대비 개선 지표 및 전국 평균 상회 지표[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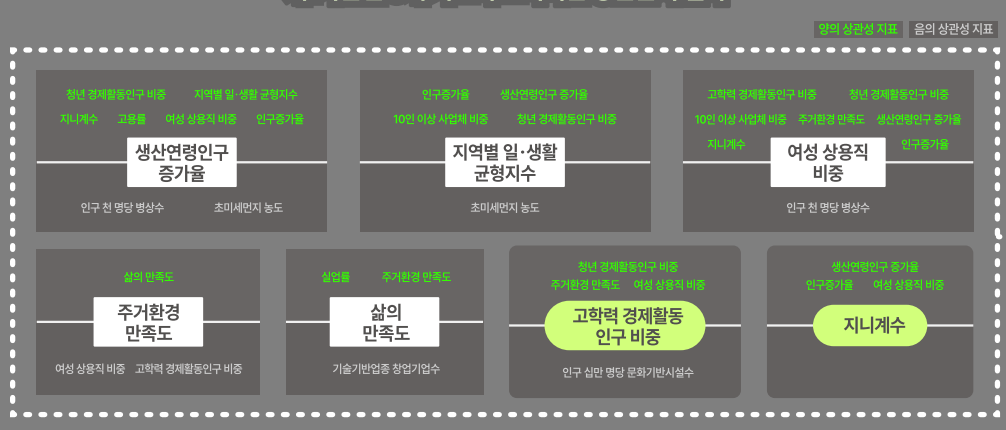


주 11) 위 사분면 그래프는 2023년 기준 2021년 대비 개선 지표(Y축)와 전국 평균 상회 지표(X축)를 구분한 그래프임. 제1사분면에 해당하는 지표는 2023년 기준 2021년 대비 개선되고 전국 평균을 상회한 지표를 의미함

2023년 기준 2021년 대비 개선되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제1사분면 8개 지표에 대하여 도시경쟁력지표 23개 지표 간 스피어만(Spearman) 상관분석을 진행했으며[12],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표를 분류했다. 녹색 지표는 양의 상관성, 회색 지표는 음의 상관성이 나타난 지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학력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청년 경제활동인구 비중, 여성 상용직 비중, 주거환경 만족도가 증가하며,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 12) 스피어만 상관분석은 순위 기반 상관성 분석으로 표본수(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적을 때 안정적 해석이 가능해 본 분석 방법을 사용함

제1사분면 8개 지표의 스피어만 상관분석 결과



대전의 도시경쟁력은 경제성장과 고학력 인재 기반,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 개선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5 23개 지표로 본 대전의 도시경쟁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23개 지표로 본 대전의 도시경쟁력 보러 가기

대전연구원 DAEJEON RESEARCH INSTITUTE 발행 김영진 | 기획 주혜진 | 작성 류형원 | 디자인 김승하 | 발행일 2025. 09. 30 | 발간물 자문 노성민 문충만 윤설민 이정범 정광진